

# 정선 가리왕산 자연휴양림과 어은골 계곡

## 공드레 나무방

울창한 숲 속을 한가로이 거니는 것만큼 평화로운 순간이 또 있을까?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추구하는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숲으로 떠나는 여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아침 숲길의 청량한 공기와 맑은 계곡에서 즐기는 탁족,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읽는 책 한 권 그리고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사.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정선으로 초대한다.

글·사진 : 전기환

### 정선으로 가는 길

새말 나들목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안흥, 평창을 지나 정선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간다. 길은 그다지 험하지는 않지만 산자락을 굽이굽이 돌아가고, 산등성을 넘어가는 길이라 한참이나 걸린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3시간 정도. 하지만 길가에 내다 놓은 옥수수며 안흥 찜빵까지 두루 맛볼 수 있어 가는 길이 그다지 지루하진 않다.

정선 읍내로 들어가기 전에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타난다. 여기서 정선까지는 불과 10분 정도. 휴양림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해서 지그재그 길을 내려가서 제법 너른 강(바로 조양강이다)을 건너면 회동리. 작은 초등학교도 있는 제법 규모 있는 마을이다. 휴양림은 도로 맨 끝에 자리해 있다. 휴양림 입구에는 얼음동굴이 있어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꼭 한번 둘러볼 만 하다. 한여름에도 항상 7도를 유지하며 서늘한 기운이 바위틈으로 새어나와 주변에서 잇기만 해도 시원하다.

### 가리왕산 자연휴양림과 어은골 계곡

회동마을 가장 인쪽에 자리잡은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어은골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에 휴양림 터를 닦았다. 어은골을 따라 가리왕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

가 놓여 있다. 가리왕산 정코스는 북평면 속암계곡의 장구목에서 오르는 길. 어은골 코스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아니다. 때문에 호젓한 등반을 즐길 수 있다.

통나무로 지은 휴양림 건물이 예쁘다. 숙박동 주변으로 장승들이 가득 모인 작은 동산이며 돌을 쌓아올린 돌탑군,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정자 등 시골 정취를 만끽할 만한 것들이 많다.

휴양관 건물을 중심으로 계곡 아래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휴양관 아래쪽으로 장승공원, 돌탑, 물레방아를 지나 야영장 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나 있다. 출렁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무명폭포를 지나 야영장에 이른다. 야영장은 십여 개의 야영 데크가 마련되어 있다. 평상처럼 생긴 목재 야영 데크는 텐트를 칠 수 있는 시설. 숲 그늘 아래 텐트를 치고 누우면 새소리, 바람소리가 귀를 간질이고, 밤이면 별뚫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릴 것만 같다.

휴양림 일대에 놓인 산책로는 나무가 우거지고, 바로 옆에 계곡을 끼고 있어 길 따라 거니는 것만으로도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곳곳에 걸린 다리가 지루함을 덜어준다. 이 산책로는 숲 해설코스로도 이용된다. 누구나 휴양림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정선 가리왕산 휴양림



여울을 타는 스릴, 동강 래프팅

가리왕산 아래에 있는 회동리는 동강의 상류인 조양강이 지나간다. 이 강에 작은 지류들이 흘러 들면서 영월에 이르면 동강이 되는 것. 강폭이 넓고 곳곳에 여울이 있어 래프팅 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을에서 래프팅 시작 지점이 10분 정도로 가까워서 편리하다. 보통 두세 시간 정도 타는데 회동마을에서 시작해 영월까지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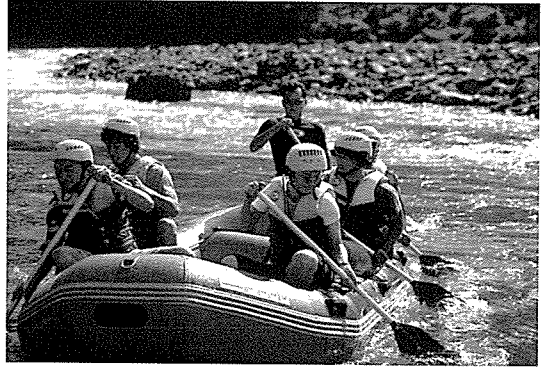
래프팅을 할 때는 한꺼번에 6명~12명 정도 보트에 타는데 구령에 맞춰 노를 젓고, 물살에 같이 몸을 맡기다보면 저절로 협동심이 생긴다. 단체 팀웍을 기르는데 이만한 레포츠도 없을 것이다.

회동마을의 아라리 레포츠(www.ararilpt.co.kr 033-562-5840)에 문의하면 래프팅, 서바이벌게임, 산악자전거, 등산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대표인 김동춘 씨를 비롯해 전문강사들 모두가 회동마을에서 태어난 청년들로 특유의 사투리 속에는 고향사랑이 묻어난다. 고향 분위기 물씬 풍기는 찻집과 향기백숙, 민물매운탕 같은 토속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까지 겸하고 있다. 가리왕산 휴양림 입구에서 5분 정도 못미쳐 길 왼편에 향토집이 보인다.

구수하고 향긋한 곤드레나물밥

정선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은 곤드레나물밥.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판을 치는 요즈음, 고작 나물밥이라니 실망스러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곤드레나물밥에는 우리네 선조들의 애뜻한 삶이 녹아들어 있다. 게다가 건강 음식으로 나물밥 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옛날,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먹던 것이 곤드레나물밥인데 지금은 과거를 회상하며 먹는 추억의 음식이 되었다.

▼ 정선 동강 래프팅



곤드레는 취나물처럼 생긴 산나물의 일종인데 옛날에는 춘궁기에 곤드레 나물에 쌀가루를 조금 넣어 죽을 쑤어 먹었다고 한다. 지금은 죽을 쑤지는 않고, 밥을 지을 때 나물을 넣어 짓는다. 콩나물밥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지은 밥에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양념간장을 넣어 스스 비벼 먹는 것이 다. 향긋한 곤드레 향기에 입맛이 동한다. [Z]

실용정보

🚗 교통

영동고속도로 새말IC로 빠져나간다. 42번 국도를 따라 안흥, 평창을 지난다. 평창과 정선 경계에 놓인 마전터널을 터널을 지나 10분쯤 달리다보면 솔치재가 나오고 왼편에 가리왕산 휴양림 표지가 보인다. 표지를 따라 좌회전해서 회동마을을 지나 계속가면 도로 마지막에 휴양림이 나온다. 서울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 맛집

싸리골식당 : 곤드레나물밥 5,000원, 도토리무침 7,000원. ☎ 033-562-4554

📍 찾아가기

정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읍내 방면으로 정선교를 건너 자마자 오른쪽에 싸리골식당이 있다.